

2018 부활주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행복했을까?

1. 나사로의 부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정점이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졌던 '죽음'을 결박을 끊어내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 놓으셨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무력하다. 죽음은 단절이다. 어떤 기회도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언도'되어 있다. 사람은 출생하는 그 순간 '죽음'이 언도된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패배자'이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다. 이런 죽음을 예수님은 부활로 이기셨다. 당연하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죽음에서 나온 인간이 있다. 그 사람이 나사로이다. 나사로 또한 부활했다. 질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음 앞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런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슬픈 사건이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게 된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신' 뿐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미리 들으셨음에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신다. 항상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시면 바로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더 의아하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움직이신다. 많은 사람에게 원망 섞인 말도 들으신다. (빨리 오셨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상황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이신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이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고, 그들의 모든 기득권이 흔들리는 사건이 되었다. (민심의 동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 되는 역설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 후의 삶은 어땠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망으로 죽어갈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부활' 그 후가 중요하다. 부활 후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2. 리얼 라이브 줄거리

* 마테오 길 감독

: 주인공 톰 휴즈에게 있어서 행복의 의미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암'을 단순히 이겨낸 것이 행복인가? 행복을 '물리적 해결'로 얻을 수 있는가?

* 나사로를 불렀던 장면

: 나사로와 같은 부활 이후, 톰 휴즈에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결국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

3. 행복과 부활

물리적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순간이 해결된 순간인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죽음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이긴 사실이 아니라, 부활 후 더 큰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열려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모든 행복의 근원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세계관, 땅의 차원, 육의 차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의 순간의 영향력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비교 당하지 않아도 되고, 열등감, 수치심,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복)

4. 부활 그리고 제자들

[누가복음 24: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누가복음 24:36-38]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실체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하셨음에도 두려워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무디고, 의심을 품고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하셨음에도 그들은 육에서 들리는 두려움, 의심, 불안, 걱정, 근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부활은 사실이지만 부활 후 제자들의 삶은 부활이 아니었다.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다른 것이 없다.

5. 부활 후,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는 메시지이다. "이제 너희들을 붙잡고 있었던 육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라. 너희에게 이미 평화가 임했다. 이제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소리는 죽을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의 소리, 천국을 보게 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 후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보아야 하고, 다르게 들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여전히 육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 이제 평화의 소리를 듣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리, 긍정의 소리를 듣자. 그리고 그렇게 살자.

부활 그 후, 나сар은 행복했을까? 당연히 행복했다. 왜? 영원한 복의 근원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부활을 믿는가? 무덤의 돌문을 나온 우리를 예수님이 맞이하신다. 그래서 부활 그 후, 우리는 행복하다. 아멘.